

JY, 삼성 5G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 참석 “도전자 자세로 경쟁력 키워야”

업계최초 생산공장에 5G통신 적용 불량률 낮추고 생산성 향상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3일 5G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원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식사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

5G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고동진 IM부문 대표이사 사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전경훈 네트워크사업 부장 부사장 등 경영진과 네트워크사업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5G 네트워크 장비 생산 공장을 5G 통신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 단말, 장비 등 5G 사업 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KT 등 국내 통신사와 AT&T·버라이즌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5G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업계 최초로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월에 미국에서 열린 ‘웰컴 서밋’에서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데 이어, 5G 기능이 적용된 첫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4년간 주춤했던 현대·기아차 ‘럭셔리’·‘수소차’로 올 승부수

지난해 총 판매대수 740만대
4년연속 판매목표 달성 실패

글로벌 시장 판매회복 위해
제네시스 등 고급차로 공략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760만대로 잡았다. 특히 전 세계 시장 침체를 뚫기 위한 해법으로 ‘고급차’ 시장공략을 내놓았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 이후 해외 시장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내수 시장과 신흥국에서의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의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실적 개선에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739만8975대로 집계됐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각각 458만6775대, 281만22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8%, 2.4% 늘었다. 그러나 이는 연초 판매 목표로 제시한 해외 467만5000대, 국내 287만5000대 등 총 755만대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5년 820만대, 2016년 813만대, 2017년 825만대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 연 판매량은 801만대, 788만대, 725만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주요 시장의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악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현대·기아차는 올해도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침체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시장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갖춘 신차를 앞세워 글로벌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에 투입되는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각 시장별 상황과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신차를 적재적소에 투입해 꾸준한 판매 증가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전세계 권역본부 설립을 완료하고, 권역별 자율경영,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 실적을 회복하고, 미래 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략을 앞세워 현대·기아차는 올해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5만대 늘어난 760만대로 잡았다. 다만 올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주요 시장 부진으로 정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도 글로벌 판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이보성 글로벌경영연구소장은 “2019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성장 정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선진국의 통화긴

〈현대·기아차 판매 목표치·실적〉

연도	연간 판매 목표치	실제 판매 실적
2014	786만대	800만대
2015	820만대	801만대
2016	813만대	788만대
2017	825만대	725만대
2018	755만대	739만대

축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말 이후 2년여 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은 9249만대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 시장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주요 시장의 부진으로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 관측이다.

다만 고급차 시장은 전체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6.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최근 글로벌 시장 판매 회복을 위해 제시한 고유의 기술력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과 맞물린다.

정인선 수석부회장은 ‘럭셔리’와 ‘수소 연료전지차’ 등을 승부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럭셔리 부문에서는 제네시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로 편입된 뒤에도 과거의 ‘EQ(에쿠스를 의미)’ 모델명을 쓰고 있던 에쿠스를 제네시스의 ‘G90’으로 완전히 흡수하며 브랜드의 정체성과 라인업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제네시스의 ‘G70’이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럭셔리에 대한 정 부회장의 자신감이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올 상반기 중 권역본부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SUV 모델 등 13종의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반도체, 아우디에 심는다

‘엑시노스 오토 V9’ 탑재 예정
오작동 방지 등 안정성 대폭 ↑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아우디에 탑재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아우디에 ‘엑시노스 오토 V9’를 공급을 약속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출시 예정인 아우디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오토 V9. /각사

엑시노스 오토 V9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프로세서다. 고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비는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로 설계돼 내구도도 크게 높였다.

속도는 최대 2.1GHz에 옥타코어를 적용했다. 디스플레이 장치 6개와 카메라 12대를 운용할 수 있다.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3개 사용해 디지털 계기판과 CID, HUD 등을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특히 엑시노스 오토 V9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신경망처리장치(NPU)도 탑재했다. 운전자 음성과 얼굴 및 동작을 인식하고, 운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줄도 안다.

차량용 시스템 안전기준 ‘에이실-B’를 지원하는 영역도 별도로 마련해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해준다. 안정성을 대폭 높여주는 셈이다.

/김재용 기자 juk@

상품성 강화한 ‘2019년형 모닝’ 출시

기아차, 본격 판매 돌입
고화질 DMB 장착 등
고객 편의성 대폭 높여

기아자동차가 3일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 높은 ‘2019년형 모닝’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2019년형 모닝에 후방 주차 보조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고객들이 후방주행 및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아차는 첫차를 구매하는 고객

들이 모닝을 많이 선택한다는 점에 착안해 후방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배려했다.

또, 고화질 DMB를 장착하고 럭셔리 트림부터 히트드 스티어링 휠과 자동요금징수 시스템(ETCS)을 기본 적용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2019년형 모닝의 가격은 ▲가솔린 1.0 모델 1075만~1445만원 ▲가솔린 1.0 터보모델 1589만원 ▲LPI 모델 1235만~142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인공지능 품은 8K TV 공개

CES 2019서 8K 올레드 TV 첫선
8K 슈퍼 울트라HD TV도 선보여

LG전자가 8K TV 시장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OLED와 QLED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소비자가전쇼(CES) 2019’에 8K 올레드 TV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TV 크기는 88인치다. 최근 삼성전자가 출시한 85인치 QLED 8K TV보다 크다.

아울러 LED 제품인 75인치 8K 슈퍼 울트라HD TV도 CES 2019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독자개발한 나노셀 기술에 풀러레이 로컬디밍 기술을 추가해 더 정확한 색표현력을 자랑한다.

새로운 TV에는 LG전자 인공지능 프로세서 ‘알파9 2세대’가 탑재된다. 영상 100만개 이상을 ‘딥러닝’해 배경과 사물을 인지하고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TV가 설치된 공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줄도 안다.

업스케일 기능도 있다. 풀HD(2K)와 UHD(4K) 영상을 8K로 바꿔준다. 콘텐츠



LG전자가 CES2019에 8K OLED TV를 선보인다. /LG전자

츠에 따라 음원을 최적화해주는 능력도 있다. QLED 8K TV와는 달리 2채널 음원을 5.1채널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생태계도 한층 확대됐다. 독자 플랫폼과 구글 어시스턴트에 이어, 아마존 알렉사도 지원하게 됐다. TV 리모콘에서 알렉사 전용 버튼을 누르고 알렉사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음성명령 인식 능력도 강화됐다. 대화 맥락을 읽을 줄 알게 된 것. LG전자는 음성인식 기능을 올해 140여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대우전자 ‘프라이어 오븐’ 누적 10만대 판매 달성

대우전자가 프라이어 오븐을 누적 10만대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프라이어 오븐은 2013년 출시 후 30여 개국에 수출되는 복합 오븐이다. 매년 2만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복합오븐 시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프라이어 오븐은 에어프라이어 기술을 적용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튀김용 전용 용기를 채용한 것이다.

또 프라이어오븐은 할로겐 적외선을 이용한 ‘광파 히팅’과 세라믹 특성을 살린 ‘미라클론 히팅’ 방식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조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리 기능은 전자렌지와 그릴, 오븐, 발효, 튀김 등 5가지나 된다.

/김재용 기자



대우전자 프라이어 오븐. /대우전자